

고등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분화, 자존감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최 윤 선*

이 규 미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또래지지가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의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22명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자기분화, 자존감, 또래지지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SPSS 21.0과 PROCE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의 결과, 가족기능, 자기분화, 자존감, 또래지지는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기능은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고, 높아진 자기분화수준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다음으로,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또래지지는 자기분화를 촉진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으면 자기분화가 더욱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분화의 매개모형과 또래지지의 조절모형을 결합한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또래지지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으면 자기분화가 증가하였고, 높아진 자기분화가 자존감을 더욱 높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역할이 확인됨으로써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역할이 확인됨으로써 자기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나타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또래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됨으로써, 자존감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와 그 경로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자존감, 자기분화, 가족기능, 또래지지, 고등학생

* 본 연구는 최윤선의 박사학위논문(2019)을 수정하고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윤선,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E-mail: kdsunny@daum.net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변화와 사회적응, 심리적 갈등 등을 겪는 복합적인 스트레스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부모와 관계변화를 경험하고 자기내부에서의 불일치를 인지하며(Harter, Marold, Whitesell, & Cobbs, 1996) ‘나는 누구인가’라는 혼란스러움과 의문을 갖게 된다. 자기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생각, 지식, 느낌 등의 정보를 말한다(Campbell, Trapnell, Heine, Katz, Lavallee, & Lehman, 1996). 자기개념은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Festinger, 1954), 경험을 해석하며(DePaulo & Kashy, 1998), 성취를 촉진하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정체감 혼란을 겪는 청소년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 안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기개념은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며, 진로의 선택과 성취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이나 상담장면에서 청소년들이 자기개념을 높이도록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찾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참조하여 자기를 이해한다(Baldwin, Carrell, & Lopez, 1990; Martin, Eisenbud, & Rose, 1995). 자기개념의 정보는 사회비교(Festinger, 1954), 자기능력평가(Harter, 1983), 타인의 피드백(Cooley, 1902) 등을 통해 전달된다. 결국 자기개념은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Cooley, 1902). 자기개념은 자기효능감, 자기복잡성, 자기개념 명료성, 자기괴리, 자존감 등이 있다(Campbell et al., 1996). Rosenberg(1965)는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이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보았다. 자존감은 대인관계 속에서 느끼는 자기가치감에 대한 지각과 평가이다(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자존감의 이론인 사회계량기모델에서 자존감은 계량기처럼 사회에 소속된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자존감은 자신이 타인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며, 소속감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었는지를 계량한다(Leary et al., 1995). 즉,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고 느끼면 계량기(자존감)의 수위는 높아진다. 따라서 자존감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중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과 가족 및 또래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래에 몰두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청소년의 자존감 발달에 여전히 중요하다. 온화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개념을 발달시켰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였다(Rosenberg, 1963).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된다(Cassidy, Kirsh, Scolton, & Parke, 1996). 가족 상호작용의 질이 좋으면 자녀의 자존감은 높고 문제행동과 학교부적응 수준은 낮았다. Olson과 그의 동료들은(1979)은 가족의 상호작용을 응집성과 적응성이라는 중심 변인을 통해 설명하였다. 응집성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느끼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 적응성이란 가족의 권력구조, 역할, 관계에서 가족 규칙이 유연성을 뜻한다.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으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정서적으로 친밀하며,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이 높고 자율성이 높았다(Cooper, Grotevant &

Condon, 1983; White, Speisman & Costos, 1983). 반면에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으면 친밀감이 부족하고 경직된 가족규칙을 보였다(Robertson & Simmons, 1989). 낮은 응집성은 자녀들은 부적응과 외현화된 문제행동(Holmes, Yu, & Frenz, 1999), 높은 수준의 소외감과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설명하였다(박선아, 2011; 조소연, 정주원, 2017). 그러므로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은 자녀의 자존감과 적응적 발달에 기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은 그들에게 중요한 사회집단이다. 또래집단은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된 규칙, 말투, 행동을 발전시키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집단정체감을 형성한다(Cairns et al., 1995). 또래집단의 개성을 표현하는 시도는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Brown, 1990).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은 가족, 교사, 또래 등이 있으며, 청소년들은 또래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Furman & Buhrmester, 1985). 또래지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에 도움을 준다(DeRoiser & Kupersmidt, 1991). House(1981)는 또래지지를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세분화하였다. 즉, 또래지지만 또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도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의 유, 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House, 1981).

자기개념에 대한 또래의 영향력은 중학생 시기부터 증가하여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부모의 영향력을 넘어선다(이사라, 2000). 따라서 청소년의 자존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또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박미란, 이지연, 2007; 유현옥, 홍혜영, 2015). 또래관계는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하였고(이선주, 임효진, 2018), 부모의 의사소통방식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주현주, 2017). 또래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타인으로 청소년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박미란, 이지연, 2007).

한편,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개별화하는 시기이다. 중요한 타인의 영향력은 자기개념과의 관계에서 위험성을 내포한다.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의 피드백과 평가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에(Martin et al., 1995). 만일 자기의 주체성이 취약하여 타인의 승인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면 자기개념을 독립적으로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달적으로 청소년기는 영아기 이후 인생에서 두 번째의 분리-개별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Blos, 1979). 청소년들은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개별화에 성공해야 성숙한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Blos, 1979; Josselson, 1988).

건강한 개별화는 불안, 죄책감, 혹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Mattanah, Hancock & Brand, 2004). 독립된 자기 인식은 자기정체성, 자율성, 그리고 자기분화 수준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분화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독립된 정도를 뜻한다(Bowen, 1978).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다(Roberta, 2018). Baptist와 그의 동료들(2012)에 의하면, 부모의 애정이 높고 통제가 낮은 가족의 자녀들은 불안이 낮고 자기분화 수준이 높았다. 기능적인 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안정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자녀들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err & Bowen, 1988). 원가족과 분화된 청소년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융합되지 않고 인지를 활용하기에 사회적응과 갈등해결에 기능적이다(Bowen, 1978). 반면에 분화 수준이 낮은 자녀들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간다(조성희, 2011). 그러므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분화된 청소년은 타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자기개념을 발달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인 관계가 융합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이며(Bowen, 1978), 개인의 심리 내에서 인지와 정서가 분리되어 있다(Kerr & Bowen, 1988).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Omizo, Omizo, & Suzuki, 1988) 불안(Carpenter, 1990) 수준이 낮고 자존감 수준은 높았다(Bowen, 1978; Satir, 1972). 자기분화 수준은 중학생(방미화, 2018) 및 대학생(김형진, 2013)의 자존감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애정과 인정을 구하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쏟는다(Roberta, 2018). 그러므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타인과 정서적, 관계적 분화가 명료하여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인생에서 제 2차 분리-개별화가 시작된다. 중학교 시기에는 성장폭등을 경험하며 자기개념의 동요가 심하며,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든다(Cole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족 및 또래라는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자기분화와 상관이 있으며 이는 자존감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자존감과 상관 또는 영향관계가 있으며(정채은, 2012; 홍명순, 2012), 자기분화에 대한 영향요인이며(김경옥, 2015; 박유화, 2011), 자기분화는 자존감과 관련이 있었다(김진영, 박승민, 2012; 오세나, 2016)는 선행연구에 기초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각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가족기능, 자기분화,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역할을 밝힌 적은 없었다. 또한 중학생(오세나, 2016)과 대학생(김진영, 2011)을 대상으로 한 자기분화와 자존감 관련 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자존감과 관련된 가족과 또래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곽윤영, 정문자, 2010; Bucx et al., 2008)이나 또래(Ainthworth, 1989; Marrone, 2000; Weiss, 1982) 중 어느 한 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 가족관계가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가족과 또래는 모두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타인이므로 청소년의 자기분화와 자존감에 이 두 요인이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자기분화는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또래와의 관계와 더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므로(양영화, 정주리, 2018), 만일 가족기능이 낮더라도 또래지지가 높으면 청소년의 자기분화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종합하면, 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들은 자기분화된 경향을 보이며 자기분화를 통해서 자존감이 높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또래지지가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과 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만일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역할을 한다면, 자존감의 발달과정에서 자기분화의 중요성이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다. 또한 또래지지가 조절역할을 한다면 가족과 또래의 중재역할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이며, 자기분화와 자존감을 촉진하는 기제를 찾게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이나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자기분화와 자존감을 높게 발달하도록 돕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3. 가족기능, 자기분화, 자존감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 2학년생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한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31일까지였다. 총 570부를 배포하여 548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548부의 응답지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있는 16부와 일괄적으로 응답한 3부, 친구수가 0명이라고 응답한 3부, ‘부모님과 함께 살지도 않으며 주기적으로 만나지도 않는다’고 응답한 4부를 제외한(제외 총 26부), 총 52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비율은 남학생은 298명(57.1%), 여학생은 224명(42.9%)이었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327명(62.6%), 2학년이 195명(37.4%)이었다.

측정도구

가족기능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과 그의 동료들(Olson, Portner, & Levee, 1985)이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 III: FACES III)를 개발하였다. 현재 가족기능 척도는 FACES IV까지 나와 있으나 FACES IV를 사용한 연구자들은 일부 문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낮은 신뢰도의 문제를 보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FACES IV보다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이는 FACES II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귀연(1993)이 번안한 것으로, 가족기능의 하위요인인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는 총 20문항이며 5점 Likert식 척도(1점~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 수준이 높다. 원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68이었고, 한국형 척도(전귀연, 1993)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척도가 .90(응집성 .85, 적응성 .83)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기분화

Skowron과 Friedlander가 1998년에 개발하고 Skowron과 Shumit가 2003년에 보완한 DSI-R(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SI)을 정경연(2007)이 번안한 한국판 DSI-R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분화의 4가지 하위요인(정서적반응성, 나-위치, 정서적 단절, 타인과 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는 총 44문항이며, 5점 Likert식 척도(1점~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다. 한편, 한국판 DSI-R 척도는 6점 Likert식 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5점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드물게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었다. 원척도의 내적일치도는 하위요인별로 정서적 반응성 .89, 나-위치 .81, 정서적 단절 .84, 타인과의 융합 .86이었으며, 한국판 DSI-R 척도(정경연, 2007)의 내적일치도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척도는 .90(정서적반응성 .87, 나-위치 .51, 정서적 단절 .83, 타인과 융합 .75)이었다.

자존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이며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는 총 10문항이며 5점 Likert식 척도(1점~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수준이 높다. 한국형 척도에서 내적일치도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9였다.

또래지지

또래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Nolten(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미라(2001)가 수정·보완한

학생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지지 체계를 부모, 교사, 또래로 나누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또래지지 척도를 사용 하였다. 또래지지는 4가지 하위요인(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는 총 9문항이며 5점 Likert식 척도(1점~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지지 수준이 높다. 이미라의 연구(2001)에서 내적일치도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는 .92(정서적지지 .84, 정보적지지 .78, 도구적지지 .68, 평가적지지 .80)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과 SP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Preacher 등(Preacher, Rucker, & Hayes, 2007)이 제안한 대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후,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Muller과 그의 동료들(Muller, Judd, & Yzerbyt, 2005)의 제안을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효과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넷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한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

시하였다. 여섯째, Preacher등(2007)이 개발한 SPSS Macro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이전에 기초적인 자료인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첨도가 양수이면 표준편차가 작아져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형태를 보이며 첨도가 음수이면 표준편차가 커져서 정규분포보다 좌우로 퍼진 형태를 보인다. 왜도가 양수이면 정규분포보다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보이며 음수이면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보인다(이일현, 2014). 또한 첨도의 절대값이 7미만인

경우에 왜도의 절대값이 2미만일 경우 해당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Curran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첨도의 절대값은 .642 이하이며, 왜도의 절대값은 .794 이하로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인 자존감, 또래지지, 가족기능, 자기분화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왜도는 .120 ~ .231, 첨도는 .021 ~ .64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7 이하에 해당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Cohen, 2003)으로 나타났다. 자존감과 또래지지($r=.405, p<.01$), 가족기능($r=.465, p<.01$), 자기분화($r=.581, p<.01$)는 유의미하였고, 또래지지와 가족기능($r=.442, p<.01$), 자기분화($r=.273, p<.01$)는 유의미하였고, 가족기능과 자기분화($r=.325, p<.01$)는 유의미하였다.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1	자존감	-			
2	또래지지	.405**	-		
3	가족기능	.465**	.442**	-	
4	자기분화	.581**	.273**	.325**	-
	최소값	1.50	2.00	2.15	1.73
	최대값	5.00	5.00	5.00	4.64
	M	3.60	3.89	3.73	3.20
	SD	.726	.694	.578	.471
	왜도	-.220	-.134	-.120	.231
	첨도	-.485	-.642	-.433	.021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가정

기술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와 매개된 조절 효과의 차이점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이 조절효과를 보이는가와 관련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만일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절된 매개효과이며 조절효과가 나타난다면 매개된 조절효과라고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정선호, 서동기, 2016; Muller, Judd, & Yzerbyt, 2005). 이 견해에 의하면, 조절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두 변인 사이의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기제를 이해하고 할 때 사용된다. 매개된 조절효과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조절변인의 효과가 어느 경로에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독립변인인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족기능과 또래지지를 각각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가족기능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이 가족기능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beta=.014, p>.05$) R^2 변화량도 유의미하지 않았다($\Delta R^2=.000, F=.128, p>.05$).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과 자존감 간의 관계를 또래지지가 조절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존감에 대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가족기능이 자기분화를 통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후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가족기능과 매개변인인 자기분화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가족기능의

표 2. 자존감에 대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비표준화 계수		β	t	R^2	ΔR^2	F
	B	SE					
1단계							
(상수)	.913	.198		4.601***			
가족기능	.445	.053	.355	8.460***	.266		93.888***
또래지지	.260	.044	.249	5.936***			
2단계							
(상수)	.917	.199		4.611***			
가족기능	.442	.053	.352	8.290***	.266	.000	62.530
또래지지	.261	.044	.249	5.940***			
가족기능× 또래지지	.023	.065	.014	.358			

*** $p<.001$

표 3.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기분화			종속변수: 자존감		
	B	S.E.	t	B	S.E.	t
상수	2.221	.127	17.428 ***	-.217	.199	-1.089
가족기능	.265	.034	7.843 ***	.387	.044	8.738 ***
자기분화				.741	.054	13.623 ***
			$R^2 = .106, F = 61.516, p = .000$	$R^2 = .422, F = 189.753, p = .000$		

*** $p < .001$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B = .387, p < .001$). 또한 자기분화의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 = .741, p < .001$). 즉, 자기분화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기능은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분화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위와 같은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는 .92였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값이 .623 ~ .856으로 나타났다.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

므로 두 모형에서의 매개효과는 신뢰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부분매개효과를 그림 1에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또래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가족기능과 조절변인인 또래지지를 같이 투입하였고, 2단계에

표 4.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결과

변인	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자기분화	.920	.818	.623	.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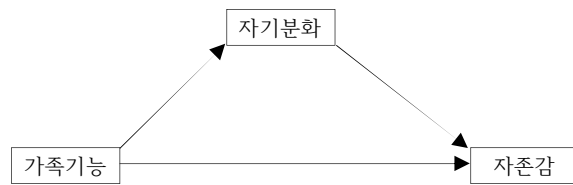


그림 1.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부분매개효과 모형

서는 독립변인인 가족기능과 조절변인인 또래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항이 유의미성과 추가적인 설명량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해 나타난 단순회귀선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PROCESS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기능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eta=.131, p<.01$),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미하였다($\Delta R^2=.017$,

$F=10.026, p<.01$). 이러한 결과는 또래지지가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가족기능을 상·하위 두 수준($M \pm 1SD$)으로 구분하고 조절변인인 또래지지를 또래지지의 수준($-1SD, M, +1SD$)으로 구분하여 회귀식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또래지지가 높은 집단의 가족기능과 자기분화 간의 기울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또래지지가 높은 집단은 가족기능이 자기분화에 대해서 갖는 설명력이 더 크고, 또래지지가 낮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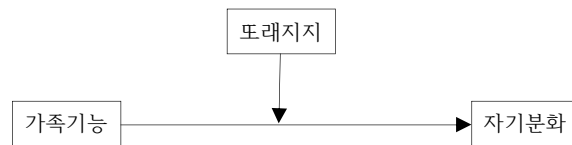


그림 2. 가족기능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표 5. 자기분화에 대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비표준화 계수		β	t	R^2	ΔR^2	F
	B	SE					
1단계							
(상수)	2.006	.140		14.294***			
가족기능	.207	.037	.255	5.567***	.126		37.555***
또래지지	.109	.031	.160	3.502**			
2단계							
(상수)	2.036	.139		14.599***			
가족기능	.188	.037	.232	5.043***	.143	.017	28.814**
또래지지	.112	.031	.165	3.647***			
가족기능 × 또래지지	.145	.046	.131	3.166**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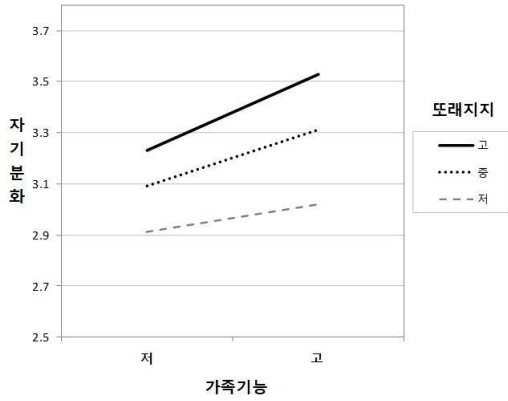


그림 3.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그래프

단은 가족기능이 자기분화에 대해서 갖는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의미한다. 즉,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아지면 자기분화는 더 크게 향상된다. 그러므로 또래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분화에 대한 가족기능의 설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절변인인 또래지지의 수준(-1SD, M, +1SD)에 따라 PROCESS에서 단순회귀선의 기울기와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또래지지의 특정 값에 따라 단순회귀선의 기울기와 유의미성이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또래지지의 평균값(M)과 1 표준편차 위(+1SD)의 단순회귀선은 유의미하였으나, 1 표준편차 아래(-1SD)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가족기능이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가 또래지지 수준이 평균이상인 경우에만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모형은 Hayes(2012)의 Macro Process(mode 7)를 통해 분석하였다.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서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나타난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

표 6. 또래지지의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변인		B	SE	t
또래지지	M-1SD	.0982	.0505	1.9448
	M	.1989	.0370	5.3750***
	M+1SD	.2996	.0470	6.368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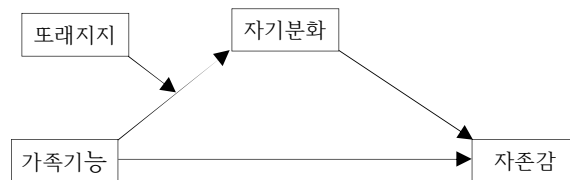


그림 4.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표 7.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종속변인: 자기분화					
(상수)	4.140	.688	6.014***	2.788	5.492
가족기능	-.375	.187	-2.000*	-.744	-.006
또래지지	-.428	.172	-2.486*	-.767	-.089
가족기능 × 또래지지	.145	.045	3.166**	.055	.235
종속변인: 자존감					
(상수)	-.216	.199	-1.089	-.607	.174
가족기능	.386	.044	8.737***	.299	.473
자기분화	.741	.054	13.623***	.634	.847

* $p < .05$, ** $p < .001$, *** $p < .001$

해보면, 가족기능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자기분화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B = .145, p < .01$), 자기분화는 자존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B = .741, p < .001$). 이를 통해 자기분화를 매개로 가족기능에서 자존감으로 가는 경로가 또래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의 변화를 의미하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나 방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PROCESS를 통해서 Bootstrapping 방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또래지지의 평균값(M)과 1 표준편차 위($+1SD$)의 조건부간접효과는 95%신뢰구간에서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1 표준편차 아래($-1SD$)에서의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또래지지 값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는 커졌다. 이것은 또래지지가 높은 집단은 가족기능이 높으면 자기분화가 더욱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자기분화를 매개로 하여 자존감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와 같은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표 8. 또래지지 수준에 따른 조건부간접효과

변인	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M-1SD$.0727	.0382	-.0006	.1494
M	.1474	.0297	.0919	.2082
$M+1SD$.2220	.0410	.1442	.3065

는 또래지지가 평균이상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또래지지가 낮은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가족기능이 자기분화를 통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래지지가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논 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기분화를 매개로 하여 가족기능이 자존감으로 가는 경로가 또래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순차적 과정으로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전체 조건(정선호, 서동기, 2016; Muller, Judd, & Yzerbyt, 2005)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가족기능과 자기분화 경로에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가족기능과 자기분화, 자존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가족기능, 자기분화, 자존감, 또래지지의 각 변인들은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 기능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존감 발달이 촉진되며(Beavers & Voeller., 1983),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심리적·정서적 기능은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Farrell & Barnes, 1993)임을 시사한다. 역기능적인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이 낮으며, 자녀들의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은경, 2004, 정미혜, 2004). 본 연구 역시 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능이 자존감을 설명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기능이 높으면 자기분화가 높았고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이 높은 청소년들은 분리감을 획득하고 개별화가 촉진되어 심리적으로 분화된 개인으로 발달된다(Cooper, Grotevant & Condon, 1983; Frank, Avery, & Laman, 1988).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가족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일 가족기능을 높이기 어렵다면 청소년들의 분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또래지지와 자기분화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박지선, 김남희, 천성문, 2002; 양영화, 정주리, 2018). 또한 또래관계는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하였고(이선주, 임효진, 2018), 부모의 의사소통방식과 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하였다(주현주, 2017). 본 연구에서 드러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의 자기분화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아지면 자기분화는 더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또래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의 자기분화에 가족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지가 낮으면 가족기능만으로 높일 수 있는 자기분화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족기능이 낮으면 또래지지만으로 높일 수 있는 자기분화의 수준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분화에는 가족기능과 또래지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래지지는 가족기능과 자기분화 간의 경로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증가시켰다. 이것은 또래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은 가족기능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또래지지가 자기분화를 더욱 촉진하게 됨으로써 자기분화가 높아지고, 높아진 자기분화가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와 같은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또래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발달에 가족의 영향력을 강조하거나(곽윤영, 정문자, 2010; Bucx et al., 2008), 또래와의 유대를 더 강조하기도 한다(Ainthworth, 1989; Marrone, 2000; Weiss, 1982).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존감에 가족과 또래는 모두 중요하며 자기분화에는 청소년 시기일지라도 여전히 가족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는 가족이나 또래 중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자기분화와 자존감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즉, 청소년들의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모형이 성립하였다. 즉,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자기분화가 높아지고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효과를 완충하는 또래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또래지지가 높아야 자기분화에 대한 가족기능의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기능과 자기분화, 자존감의 매개모형을 또래지지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존감을 높고 안정적으로 발달시키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또래지지가 자기분화를 촉진하여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학술적인 시사점과 상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역할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가족기능과 자기분화와의 관계(김경옥, 2015; 박유화, 2011)나 자기분화와 자존감의 관계(김진영, 박승민, 2012; 오세나, 2016),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정채은, 2012; 홍명순, 2012)이 있으나, 가족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자존감에 대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가족기능이 높은 사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에 이르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자존감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기능과 또래지지의 역할을 새롭게 밝혔다는 데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가족기능은 가족의 역동성으로(Olson, 1979) 청소년 개인의 노력으로는 잘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기능이 낮더라도 자기분화를 높이는 보호요인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이 낮을 때 또래지지가 자기분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가족기능이 낮은 청소년일지라도 또래지지를 높여 줌으로써 자기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기능이 높을지라도 또래지지가 낮으면 자기분화의 정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족과 또래의 영향이 둘 중 어느 누구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보다는 청소년의 자기개념 발달에 두 요인이 상승작용을 나타내준다는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녀에게 가족과 또래의 중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셋째, 가족기능과 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와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새롭게 확인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이 낮더라도 또래의 지지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분화 촉진시키고, 이렇게 높아진 자기분화로 인해 자존감을 높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가족기능, 자기분화, 자존감에 중요한 기제와 경로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자기분화를 높이는 것이 청소년의 자존감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더 많은 주변 불안이 존재하며,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Bowen, 1978).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은 관계 융합이 해소되어 더 잘 기능하게 된다(Gibert, 2018). 기본수준의 분화는 세대전의 되므로 변화가능성이 적지만 기능수준의 분화는 개인의 경험과 개입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은 기능수준의 변화부터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상숙, 2013). 그러므로 상담 장면에서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자기분화의 개념을 인식시키고 이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 내담자의 또래지지를 향상시켜 자기분화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내담자의 또래 관계를 탐색하고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인기 있는 아동은 친숙하지 않은 뛰어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방식으로 행동하였다(Gazelle et al., 2005). 그러므로 또래지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또래지지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족기능이 향상될 때 또래지지와 상승작용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분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중

요한 타인이 가족을 넘어서 또래로 확장된다. 청소년의 부모들은 또래관계가 깊어지면 학업 저하와 가출, 비행(박민선, 2008) 및 또래 동조성(박수경, 김영혜, 2015)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취향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예: 의상, 음악 등)은 또래의 의견을 가족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Young & Ferguson, 1979). 그러나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사안(예: 진로 결정 등)에서는 부모의 견해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초기 청소년기에는 또래에 대한 동조현상이 증가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권위적인 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율적이며 동료의 동조 압력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Clasen, & Eicher, 1986). 그러므로 청소년 상담에 기능적인 가족의 중요성과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의 대표적인 변인으로 자존감을 선택하였으며, 자기분화가 자기개념의 선행변인이자 동시에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영향력 있는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의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분화가 선행변인이며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경기도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등의 기숙형 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연구대상을 폭넓게 확대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응답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방어적으로 대답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등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들이 청소년의 자기개념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김경옥 (2015).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역기능과 심리성숙도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박승민 (2012). 기독교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 그리고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2), 115-140.
- 김형진 (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란, 이지연 (2007). 또래애착이 초기청소년기 우정관계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5(2), 81-95.
- 박민선 (2008). 청소년 가출빈도와 비행 또래

- 수의 변화추정 및 두 효과 간 인과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2), 111-139.
- 박상숙 (2012). 개인 가족치료를 한 애착과 자아분화 이론 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아 (2011). 가족기능이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 김영혜 (2015). 중학생의 또래동조성과 눈 사용정도 및 인식이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 1-27.
- 박유화 (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 김남희, 천성문 (2002). 대학생의 동료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분화 및 인간관계 성숙도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3(2), 322-336.
- 방미화 (2018). 기독교청소년의 자아분화 및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연구. *가족과 상담*, 8(1), 1-23.
- 양영화, 정주리 (2018). 모 자아분화가 자녀 자아분화와 모-자녀관계를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3), 361-378.
- 유현욱, 홍혜영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77-999.
- 오세나 (2016). 부의 과보호와 남녀청소년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영화, 정주리 (2018). 모 자아분화가 자녀 자아분화와 모-자녀관계를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3), 361-378.
- 이나라 (2000). 부모와 또래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주, 임효진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존감의 관계에서 학교급에 따른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한국초등교육*, 29(3), 1-18.
- 이일현 (2014).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개발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 전귀연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연 (2007). 부모 및 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미혜 (2010). 역기능 가정의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낮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채은 (2012).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채은 (2012).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소연, 정주원 (2017). 중학생의 SNS중독 경향성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

-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3), 125-140.
- 조성희 (2011).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에 근거한 어머니의 양육 경험 탐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현주 (2017). 위탁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명순 (2012).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nth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Baldwin, M. W., Carrell, S. E., & Lopez, D. F. (1990). Priming relationship schemas: my advisor and the pope are watching me from the back of my min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5), 435-454.
- Baptist, J. A., Thompson, D. E., Norton, A. M., Hardy, N. R. & Link, C. D. (2012). The effects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emotional processes on conflict styles: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1), 56-73.
- Beavers, W. R., & Voeller, M. N. (1983).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s*, 22(1), 85-98..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London: Aronson.
- Brown, A. M. (1990). Development of visual sensitivity to light and color vision in human infants: A critical review. *Vision Research*, 30(8), 1159-1188.
- Brown, B. B., Clasen, D. R.,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521-530.
- Bucx, F., Van Wel, F., Knijn, T., & Hagendoorn, L. (2008).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the life course status of young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44-156.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airns, R. B., Leung, M., Buchanan, L., & Cairns, B. D. (1995). Friendships and social network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Fluidity, reliability, and interrelations. *Child Development*, 66(5), 1330-1345.
- Carpenter, H. N. (1990). A test of Bowen Family system theory: The relationship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anxiety. Univ of Maryland, Ph. D., Dissertation Abstracts.
- Cassidy, J., Kirsh, S. J., Scolton, K. L., & Parke, R. D. (1996). Attachment and representations of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92-90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M., Peake, L. G., Scoroczynski, A. D., Tram, J. M., Hoffman, K. B., Ruiz, M. D., Jicquez, F., & Maschman, T.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Cooper, C. R., Grotevant, H. D., & Condon, S. M. (1983).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s a context for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nd role taking skill.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83*(22), 43-5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8). Exploring children's emotional insecurity as a mediator of the link between marital relations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24-139.
- DePaulo, B. M., & Kashy, D. A. (1998). Everyday lies in close and casu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63-79.
- DeRosier, M. E., & Kupersmidt, J. B. (1991). Costarica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56-662.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Farrell, M. P., & Barnes G. M. (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Barn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119-132.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rank, S. J., Avery, C. B., & Laman, M. S. (1988). Young adul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nectedness, competence, and emotional autonomy. *Developmental Psychology, 24*(5), 729-737.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azelle, H., Putaliaz, M., Li, Y., Grimes, C. L., Kupersmidt, J. B., & Coie, J. D. (2005). Anxious solitude across contexts: Girls' interactions with familiar and unfamiliar peers. *Child Development, 76*(1), 227-246.
- Gilbert, R. M. (2018). *The eight concepts of bowen theory*. Leading Systems Press. 보웬이론의 8가지 개념. 김경 역. 서울: 학지사.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New York: Wiley.
- Harter, S., Marold, D. B., Whitesell, N. R., & Cobbs, G. (1996). A model of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 and peer support on adolescent false self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2), 360-374.
- Hayes, A. F., & Matthes, J. (2009). Computational

-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924-936.
- Holmes, C. S., Yu, Z., & Frentz, J. (1999). Chronic and discrete stress as predictors of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3), 411-419.
- House, J. S. (1981). *The nature of social support.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New York, NY.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NY, US: Norton & Co.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18-530.
- Marrone, M. (2000). *Attachment and interaction*. London: Jessica Kingsley.
- Martin, C. L., Eisenbud, L., & Rose, H. (1995). Children's gender based reasoning about toys. *Child development*, 66(5), 1453-1471.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Omizo, M. M., Omizo, S. A., & Suzuki, L. A. (1988). Children and stress: An exploratory study of stressors and symptoms. *School Counselor*, 35(4), 267-274.
- Olson, D. H., Portner, J., & Levee, Y. (1985). FACE III.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Family Process*, 18(1), 3-28.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obertson, J. F., & Simmons, R. L. (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Feb), 125-138.
- Rosenberg, M. (1963). Parental interest and children's self-conceptions. *Sociometry*, 26(1), 35-4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tir, V. (1972). *Peoplemaking*.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35-246.
- Skowron, E. A., & Schmitt, T. 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2), 209-222.

- Weiss, B.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New York: Basic Books.
- White, K. M., Speisman, J. C., & Costos, D. (1983).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 Individuation to mutualit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1983(22), 61-76.
- Young, J. W., & Ferguson, L. R. (1979). Developmental changes through adolescence in the spontaneous nomination of reference groups as a function of decision cont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2), 239-252.

원 고 접 수 일 : 2020. 02.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4. 03.

최종게재결정일 : 2020. 04. 03.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among High School Students

Yoon Sun Choi

Kyu Mee Lee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elf-differenti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and to examine whether peer support and family conflicts ha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For this purpose, 522 students from four high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were surveyed about their family functioning,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peer support.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PROCESS. The mediating, modulating,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family functioning,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peer support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peer support were as follows. First, self-differentia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such that family functioning and self-differenti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peer support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differentiation that promoted self-differentiation. Thus, peer support affected family functioning and self-differentiation. Third, verifying the moderated mediating model of peer support by combining the mediation model of self-differentiation and the moderation model of peer support identified above showed that self-differenti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Thus, family support affected self-differenti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affected self-estee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self-differentia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Second, it showed that peer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differentiation, identifying a mechanism that promotes self-differentiation. Third, it showed the mediation of self-differenti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depended on peer support.

Key words : self-esteem, family functioning, self-differentiation, peer support, high school student